뉴스레터 2014-1호 (통산 6호) 2014년 5월 12일
후원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류재근)

(사) 한국환경준설학회

고문: 류재근
회장: 홍기훈
부회장: 김석현, 이호식, 김영석, 이문형, 정종관
감사: 손민호

http:://www.k-environmentaldredging.or.kr (우) 137-773 서울 서초구 서운로 62의 10동601호
(투고 안내: 총무이사 김 경련: 전화: 031-400-6185 팩스: 031-408-4493 이-메일: aceofsky@hanmail.net)

목차

발간사
1 한국환경준설 학회 춘계학술대회
2 해외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4 언론에서보는 국내 준설기사
5 입회원서

발간사

한국환경준설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14년 4월 11일에 춘계학술대회를 프레지던트 호텔(19층 아이비 룸,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하여 풍성한 성과를 수확하였습니다. 동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농어촌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관계관들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또 환경언론의 대표인사께서도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자와 참가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홈 페이지에는 학회 행사 정보, 최근 소식, 우리 학회지 등 다양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회지에 논문, 기술보고, 사업사례를 많이 투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회는 물인프라의 퇴적물 관리에 대한 집단지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친목도모 및 신규 회원을 모시기 위해 뉴스레터를 발간합니다. 그러므로 이 뉴스레터를 받으시면 주위에 계시는 환경준설관련 산업계/정부/학계 인사들께 회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의 기관지인 '한국환경준설학회지'에 논문과 기술보고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 및 사업 사례를 많이 발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의 어려움을 깊이 성찰하여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한 해를 우리 학회가 선도하고, 또 회원님의 댁내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4 년 5 월 12 일
(사)한국환경준설학회
회장 홍 기훈 배상
ghhong@kiost.ac

1. 한국환경준설학회 2014 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주최:** (사)한국환경준설학회
- **후원:** 해양수산부,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워터저널
- **일시:** 2014 년 4 월 1 일(금) 오후 1 시 ~ 6 시 (연회: 6 시 ~ 8 시)
- **장소:** 프리지던트 호텔 (서울 시청 앞, 19 층, 아이비 룸)
- **참석:** 산업계,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 60 명
- **협찬:** (주)신대양, (주)이구건설,
  (주)지오시스템리서치,
  (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토양자원, (주)FOS,
  (주)해양생태기술연구소 등 7 개사
- **주요 내용:**

- **학술발표 1. 준설과 환경 (발표 4 건)**
  농업용수 수질관리 현황과 과제
  (한국농어촌공사, 김 형중 박사)
  하천·호소 질소, 인 존재형태 및 피복을 이용한 수질영향 저감 (한남대학교, 김건하 교수)
  담수 퇴적물 현황과 수질 영향
  (한국수자원공사, 이요상 박사)
  생태하천 복원의 방향과 기술개발
  ((주)한라, 황길순 박사)

- **학술발표 2. 준설물질 유효활용 (발표 4 건)**
  염습지 환경특성과 준설물질 활용 방안
  ((주)해양환경연구소, 이승호 박사)
  생태서비스와 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충기 박사)
  준설토 활용 제고 방안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조성수 사무관)
  준설토 활용 제약요인과 활용증대 방안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김관진 과장)

- **심포지엄 (준설물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오영훈 사무관, 환경부 조성수 사무관, 한겨레 신문 조홍섭 환경대기자

2. 해외 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제12차 국제 심포지엄 (Environment, Catalysis and Process Engineering), 27 -29 May 2014, Universidad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연안 내성: 환경, 인프라, 인간 시스템 (Coastal Resilience: The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Human Systems), 21-23 May 2014. New Oreleans, LU, USA.

제 9 차 국제 컨퍼런스(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mediation of Chlorinated and Recalcitrant Compounds), 19-22 May 2014, Monterey, CA., USA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제 35 차 런던협약 및 제 8 차 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 런던의정서 (London Protocol) 합동 당사국 회의 개최, 25-30 May 2014, . New Oreleans, LU, USA.

4 언론에서 보는 국내 준설기사[1]

<도시 수로>

경포해안도로, 안목-경포-연곡 해변 도로 노면은, 인근 숲에서 낙엽과 토사가 내려와 배수로를 막아, 비만 오면 노면에 물이 고여 교통사고 우려. (강원도민 일보, 2014-05-22).

진해 장천부두 인근 하수관거 역류사고; 지난 4월24일 지름 600mm 하구관에서 50톤의 하수가 역류하여 인근 행암 수치마을 주민들이 3시간 악취에

[1] 학회에서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노출. 하수 중 일부는 장천 앞바다로 들어감. 4년 전에도 동일한 사고 발생. (경남신문, 2014—04-28).

인천, 학익 유수지, 갯골 수로와 주변 생활 오수와 빗물이 유입되고, 만조시에는 물 흐름이 막혀 수질이 악화됨. 1994년부터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2627명이 제기한 민원을 권익위 중재로 학익 유수지 하류 부 준설, 오수 유입 차단, 배수펌프 설치 (아시아 경제, 2014-04-10).

서울 노원구, 폭우 시 도로 우수 및 하수관로 막힘으로 인한 도로 침하, 물고임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수로 (우수, 하수) 준설공사 실시. 하수관로 559.2 km와 빗물받이 21,093개 준설작업을 5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 (아시아경제, 2014.04.21)

사천시, 상가, 주택 밀집지의 하수관로의 퇴적물 부식으로 인한 배수 불량과 악취 해소를 위해 하수도 준설 사업비 3억원 투입. 2013년 하수관로 52 km, 퇴적물 3,300여톤 준설함 (뉴스웨이, 2014-04-08).

군포시, 저지대 지역 하수관내 토사 및 각종 퇴적물 제거에 3억원 투입. 하수도 전용 CCTV 투입하여 사전에 확인 후 공사 실시 (경기일보, 2014-04-21).

<하천>

경남 양산시, 양산천의 국가 하천은 상북면 소토리~동면 가산리(낙동강 합류부)간 10.05㎞로 평균 하천 너비는 200m(최대330m), 둔치 1.89㎢, 둑 17.9㎞이며 시설물은 배수통문 13개소, 배수통관 14개소임. 지난 80년대 초 낙동강 하구언 수문을 만든 후부터 양산천의 물 흐름 속도가 줄어들면서 강의 하류인 동면 석산리~가산리 구간 등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 쌓인 퇴적물의 부영양화로 수온이 상승하는 초여름부터 녹조는 물론, 악취까지 발생 (경남신문, 2014-04-23).

영산강 수질개선, 영산강·목포앞바다살리기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의 의견을 수렴. 하구둑은 1978년 착공 1981년 완공으로 영산강과 바다를 갈라 놓은 지 33년 경과. 영산강은 여름철은 등급외로 수질 악화, 연안 어업 피해 심각. 하구둑 해수 유통이 대안으로 등장 (아시아 경제, 2014-05-01).

경남 하동군, 섬진강 모래톱 (신기리 상저구 마을 앞) 준설하여,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수해 방지, 재첩 서식지 복원으로 어민소득 증대 및 송림공원 백사장 (하동 8경의 하나, '백사청송(白沙青松)) 복원 공사 추진 (국비 8700만원) (국제신문, 2014-04-20).

낙동강 준설 장비, 부산국토청은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준설장비 63대가 현재 낙동강에 정박 중이나, 이중 30대는 이전했고, 나머지 38대로 우기 전에 이전할 계획을 발표.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침몰되지 않도록 임시계류장 10개소 설치, 앵커 등 결박시설 강화 중 (뉴시스 2012004-04).

전라남도, 지방 소하천 퇴적물 준설작업. 54억원 투입, 21개 시군 413개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사 115만 m^3를 준설하고 있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억 원을 확보, 22개 시군의 전문건설협회 지회가 보유한 굴삭기, 도저, 덤프에 유류대 등 실비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공사 시행. (기술사신문 2014-04-24)

진주 산청 – 농어촌 공사는 8,400만원 투입하여 산청지역 용배수로 49 km에 대한 퇴적토를 준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유휴 인력 활용 (경남신문, 2014-05-01)

<호소>

서산시 도심 호수 공원,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도심 호수 공원이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채워져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악취가 나서 주민 불편을 초래 함.(뉴스 1, 2014-04-27).

의왕시 왕송 호수 유입부에 28억원을 들여 28,000m2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수질 개선과 생태학습장 제공. 왕송호수는 1948년에 조성함. 2010년에 12,500톤, 2012년에 60,000톤 준설. (뉴시스, 2014-04-15).

양산시 동면, 법기수원지 준설로 더 많은 수량 확보 계획 (세계 일보 2014-04015).

<해양>

통영항, 다목적 부두 (5000톤 급 1 선석, 51m x 150m) 건설, 2016년 완공 예정. 작년에 항로 및 박지 준설 완료.

인천시,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을 방안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항만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따른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준설물질 재활용 방안, 해양생태보전 협력금 활용 방안 등을 모색 중. (인천일보, 2014-04-07)

컨테이너 항만의 기본 조건은 항로 수심이 – 16 m 보다 깊어야 8천 TEU급 선박이 출입할 수 있음.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8.8%로 부산, 광양에 이어 전국 3위임 (경기일보, 2014-04-04).

군산항, 준설선 (준설작업에 동원된 선박, 파이프, 부유물 일체) 안전 관제 방안 특별교육 실시. (군산미래신문, 2014-04-28).

양양군, 후진항 외 4개 토사 매몰 어항 준설사업 26,000만원 (뉴스1, 2014-03-15).

마산해양신도시 (섬) 조성 사업, 마산 합포구 앞 바다 642,000 m^2의 면적을 매립해 인공섬 조성 공사를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총 길이 3.2 km의 호안을 축조하고 그 안을 준설물질로 채울 예정. 준설물질은 무인도 근처 수로의 수심을 -10 m에서 -12.5 m로 준설하여 얻을 예정. 이 준설사업비는 675억원으로 계상. 또 이 준설사업으로 인한 마산, 고성, 거제 해역의 어민 피해 보상 등 추진. (세계일보 2014-04-02).

군산항, 금강하구 수리변화 (군산항내 유속 감소와 금강 하구둑 개방 시 상류로부터 토사 유입)에 따라 항계 내 연간 퇴적량은 670만 m^3이고 선박이 출입하는 항로구역의 퇴적량은 200만 m^3이다. 연간 준설 경비는 120억원으로 항만 세입 64억원의 2배임. 2018년까지 총 1800억원을 투입하여 군산항과 장항항의 수로의 퇴적물을 준설하여 수심은 -4.5~ - 6.5 m로 확보하고, 발생한 준설물질은 새만금 산단에 매립재로 사용예정. 군산 앞바다 금란도는 지난 1985~2011년 동안 군산시 소룡동 해망동 앞 해면에서 파낸 퇴적물을 2,027,000 m^3 쌓아 조성한 인공섬이다. (뉴시스, 2014-04-14)

(사)한국환경준설학회 2014 년도 춘계 학술대회 광경

참석자 단체사진

심포지움 사진

KEDS
(사)한국환경준설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사)한국환경준설학회 입회원서

<table>
<tr><td rowspan="11">개인회원</td><td>성명</td><td>(국문)
(한자)
(영문)</td><td rowspan="5">필수작성</td></tr>
<tr><td>생년월일</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r>
<tr><td>이-메일</td><td></td></tr>
<tr><td>소속기관명</td><td></td></tr>
<tr><td>소속기관주소</td><td>(우편번호)
(주소)</td><td rowspan="4">선택작성</td></tr>
<tr><td>우편물 수취 주소</td><td>(우편번호)
(주소)</td></tr>
<tr><td>최종학력</td><td></td></tr>
<tr><td>기술/연구 핵심어</td><td></td></tr>
<tr><td>회원 지위</td><td colspan="2">( ) 학생회원, ( ) 정회원, ( ) 이사 – 희망 하시는 곳에 기호 “O” 삽입. 단, 이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한함</td></tr>
<tr><td>연회비</td><td colspan="2">학생(박사과정) 회원: 1 만원, 정회원: 5 만원, 이사: 10만원</td></tr>
<tr><td>신청일자 및 서명</td><td colspan="2">신청일자:
성 명: 서 명:</td></tr>
<tr><td rowspan="9">단체회원</td><td>상호</td><td></td><td rowspan="6">필수작성</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국문)
(한자)
(영문)</td></tr>
<tr><td>주소</td><td>(우편번호)
(주소)</td></tr>
<tr><td>사업영역</td><td></td></tr>
<tr><td>담당자 성명/직위</td><td></td></tr>
<tr><td>담당자 연락처</td><td>(전화)
(이-메일)</td></tr>
<tr><td>연회비</td><td colspan="2">단체회원: 20만원</td></tr>
<tr><td>신청일자 및 서명</td><td colspan="2">신청일자:
성 명: 서 명:</td></tr>
</table>

주1] 연구 핵심어 작성 예: 준설장비개발, 준설물질 생물학적 처리 등, 수저퇴적물화학, 수저퇴적물생물학, 법 등 (자유로이 3개 까지)

주2] 납부 계좌: **농협중앙회 301-8826-7199-21, 한국환경준설학회**

주3] 전화: 031-400-6185, 팩스: 031-408-4493, 이메일: aceofsky@hanmail.net

(사)한국환경준설학회 단체회원 소개 (가나다 순)

㈜신대양 http://www.sindaeyang.co.kr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6번길 67번지 TEL 051-266-3306, Fax 051-266-3310	㈜에이치플러스에코 http://www.hpluseco.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제이타워 TEL 02-2037-2986, Fax 02-2037-2979
㈜이구건설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9-7. TEL 055-855-0040, FAX 055-855-0042	㈜지오시스템리서치 http://www.geosr.com/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306 호 TEL 070-7019-0600, Fax 031-479-7410
㈜코리아쌀베지 http://www.korsal.com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해기사협회301호 TEL 051-441-0801, FAX 051-441-9786	(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 http://www.kolonwe.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S동 23층 TEL 032-622-8140, Fax 032-622-8399
㈜토양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디오슈페리움 오피스동 1305호 TEL 02-714-7221, FAX 02-782-5642	해양생태기술연구소 http://www.marine-eco.co.kr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91 동명빌딩 1,4 층(용당동 485-1) TEL 051-611-6200, FAX 051-611-0588
EcoDredge 한국대리점, ㈜프런티어오프쇼어서비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로 220-12 TEL:054-275-1917, FAX:054-281-1297	㈜HN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3 TEL 061-691-5656, FAX 061-691-2727